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2년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 주제: 언어학 연구의 실제적 활용 - 이론, 교육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
-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경영대학과 인문대 1호관 사이)
- 일시: 2012. 10. 20(토) 09:00 ~ 18:00
- 등록비: 1만원(점심 및 프로시딩스 포함)
- 주최: 대한언어학회
- 주관: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 후원: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 *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발간 되었음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이중목적어구문 습득과 어휘전이

최영주
(조선대학교)

1. 서론

최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 학습자들 (한국인 영어학습자)이 영어 이중목적어 구문 (**double object dative**: 이후 DOD)과 같이 어휘적 제약을 받는 구조를 습득하는데 있어 모국어 전이 (L1 transfer)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Whong-Barr and Schwartz 2002; Oh and Zubizarreta 2003, 2006; Kang 0000; Cowan 2010).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모국어 전이가 문법의 층위를 달리하여 전이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형태부가 전이 (morphological transfer)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있다 (Whong-Barr and Schwartz 2002; Oh and Zubizarreta 2003, 2005, 2006).

Whong-Barr and Schwartz (2002) (이하 W-B&S)는 한국어의 수혜 이중목적어 구문 (**benefactive double object dative**: 이후 Ben DOD)이 도달 이중목적어 구문 (**goal double object dative**: 이후 Goal DOD)과는 달리 반드시 ‘주-’라는 동사형태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습득이 늦어지는 것은 한국어에 존재하는 동사형태소가 영어의 Ben DOD 습득을 방해하는 효과 (blocking effect)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Montrul (1997, 2000)이 주장한 형태론적 전이 (morphological transfer)를 지지하는 분석인데,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스페인어와 터키어에 존재하는 형태소들이 영어의 타동사구조 대체현상 (transitivity alternation) 을 습득하는데 방해효과를 가져온다는 Montrul (1997, 2000)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통사부 전이 (syntactic transfer)가 아닌 형태부의 전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모국어 전이가 문법의 층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반면 Oh (2010)과 Oh and Zubizarreta (이하 O&Z) (2003, 2005, 2006) 는 Ben DOD가 Goal DOD에 비해 습득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다른 분석을 제시하였다. 부사어 위치와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를 뒤섞었을 때 문법성의 차이 근거하여 한국어의 Goal DOD는 영어의 이중 목적어 구문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어의 Ben DOD는 영어와 달리 수여동사가 아닌 타동사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O&Z 2010). 이러한 타동사가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갖는 수여동사의 형식을 취하게 될 때는 반드시 ‘주-’와 같은 수여동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 동사의 형태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험으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O&Z (2006) 를 들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Goal DOD에 *gei*라는 특정 형태소를 사용한다. W-B&S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습득자들은 Goal DOD를 늦게 습득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인 영어학습자들은 *gei* 라는 형태소가 모국어에 존재함으로 인해 영어 Goal DOD 습득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결과는 이와 반대로 나타난다. 중국인 영어 습득자들은 한국인 영어습득자와 마찬가지로 Ben DOD의 습득이 Goal DOD의 습득에 비해 지연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Oh (2010)에서는 이에 대해 영어 한국어간의 통사적 차이로 분석하였다.

영어의 DOD 습득에 있어 모국어 전이 현상은 형태부 전이라기보다는 어휘부 전이라고 가정하고 한국인 영어 습득자들이 어휘부 제약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험

을 하였다.

2. 연구의 배경

영어에서 PD는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to 전치사구를 사용하는가는 for 전치사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Goal PD와 Ben PD로 각각 분류되며 이에 상응하는 DOD를 Goal DOD와 Ben DOD로 분류한다.

- (1) a. John gave a book to Mary. (Goal PD)
b. John gave Mary a book. (Goal DOD)
- (2) a. John made a cake for John (Ben PD)
b. John made John a cake (Ben DOD)

이들 DOD와 PD는 각각 의미적(혹은 형태적) 제한을 받는다 (Green 1974; Oehrle 1976; Gropen et al. 1989; Pinker 1989; Levin 1993; Pesetsky 1995; Krifka 2003). 첫째, DOD의 경우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후 간접목적어는 직접목적어를 소유한다는 것을 전제한다¹⁾. 다음 (3b)가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은 Ann이 London으로 소포를 보냈을 때 London이 소포를 소유하게 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3) a. Ann sent a package to London.
b. ??Ann sent London a package (Krifka 2003: (11))

둘째, Goal PD의 경우 직접목적어의 움직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 (4)와 (5)에서 보이듯이 headache와 idea는 Beth의 머리에서 나와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oal PD와 어울리지 않는다.

- (4) a. The explosion gave Beth a headache.
b. ??The explosion gave a headache to Beth.
- (5) a. His behavior gave Beth an idea.
b. ??His behavior gave an idea to Beth. (Krifka 2003: (14), (15))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중 kick, hit, throw, fling과 같이 움직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DOD 구조에 어울리지만 지속적인 힘의 전달을 의미하는 pull, push, lower, haul과 같은 동사들은 DOD 구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6)과 (7)에서 kick과 pull의 차이를 알 수 있다.

- (6) a. Ann kicked the ball to Beth.
b. Ann kicked Beth the ball.

1) 여기에 제시되는 의미적 형태적 제한에 대해서는 Krifka (2003)가 기존의 논의를 정리해 놓은 것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이다.

(7) a. Ann pulled the box to Beth.

b. ??Ann pulled Beth the box.

(Krifka 2003: (17), (18))

말하는 방식 (manner of speech)을 표현하는 shout, scam, yell, whisper와 같은 동사는 DOD에 나올 수 없지만 화행(speech act)을 표현하는 tell, write, read, cite, quote와 같은 동사는 DOD와 어울린다. (8)과 (9)의 예에서 그 차이가 보여진다.

(8) a. Ann shouted the news to Beth.

b. ??Ann shouted Beth the news

(9) a. Ann told the news to Beth.

b. Ann told Beth the news.

(Krifka 2003: (22), (23))

그러나 (10)에 나타나듯이 화행을 표현하는 동사라 할지라도 목적어로 절을 취하는 say, assert, claim과 같은 동사는 DOD에 나올 수 없다²⁾.

(10) a. Ann said to Beth that it was raining

b. *Ann said Beth that it was raining.

(Krifka 2003: (24))

소유를 제한하는 deny, spare, cost와 같은 동사들은 PD보다는 DOD와 잘 어울린다.

(11) a. Ann denied Beth the icecream.

b. ??Ann denied the icecream to/(from/of) Beth.

(12) a. Ann spared Beth the embarrassment.

b. ??Ann spared the embarrassment to Beth.

(Krifka 2003: (27) (28))

이러한 의미적 제한 외에도 형태음운적 (morphophonological) 제한이 있다. (13)과 (14)의 대조에서 보이듯이 의미가 비슷한 동사일지라도 라틴어에 어원을 두는 donate, report, explain, distribute, illustrate, recite, transport와 같은 동사들은 DOD 구조에 나올 수 없다.

(13) a. Beth gave the sofa to the museum

b. Beth gave them the sofa.

(14) a. Beth donated the sofa to the museum.

b. ??Beth donated them the sofa.

이러한 DOD와 PD의 차이는 모국어 (L1: 이하 L1) 습득자와 제2언어 (L2: 이하 L2) 습득자에게 공히 습득의 문제를 야기한다. L1 습득자의 경우 의미제약을 습득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여 외부에서 주어지는 데이터 (input)에 의존하는 것인지

2) 그러나 tell은 이러한 일반화에 대한 예외로 절이 목적어로 오면 반드시 DOD 구조를 취해야 한다.

(i) a. *Ann told to Beth that it was raining.

b. Ann told Beth that it was raining.

(Krifka 2003: (24))

(Baker 1979) 아니면 내재된 문법규칙에 의존하여 합법적이지 못한 구문을 사용할 것인지 (overgener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L2 습득자의 매개언어 문법(interlanguage grammar: 이후 interlanguage grammar)의 초기상태 (initial state)는 모국어 문법이 내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습득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스가 L1과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이하 UG) 두 가지이다. L1 습득자의 초기 문법 상태를 L1으로 보고 L2의 데이터가 현재 L2 습득자가 갖고 있는 문법과 충돌을 일으킬 때 UG의 제약에 따라 L2 문법을 발달시켜나간다는 것이 Schwartz and Sprouse (1994, 1996)의 완전 전이와 완전 접근(Full Transfer-Full Access: 이하 FT-FA)모델이다. W-B&S는 FT-FA 모델의 가정을 바탕으로 L1이 서로 다른 어린이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 DOD 인식 실험을 통해 interlanguage grammar의 초기상태가 L1임을 증명하려 했고, 모국어 전이가 문법 층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게 했다. 다음 장에서는 W-B&S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의문을 연구의 주제로 삼았다.

3. 선행연구

3.1. 형태부 전이

3.1.1. 실험의 가정과 결과 및 해석

W-B&S는 DOD를 허용하는 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사가 서로 다르고 Ben DOD를 허용하는 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의무적으로 동사 형태소를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어의 DOD 습득에 대한 모국어 전이가 통사부 전이인가 형태부 전이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한국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 각 5명씩을 대상으로 영어 DOD 문법성 판단 실험을 실시하였다.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의 DOD 및 PD 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어의 PD는 to 전치사구 혹은 for 전치사구로 실현되고 이에 대응되는 DOD는 의미제약 혹은 형태음운론적 제약에 따라 문법적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 | | | |
|------|-------------------------------------|---------------------------|
| (15) | a. John threw a ball to Mary. | (Goal PD) |
| | b. John threw Mary a ball. | (문법적 (licit) Goal DOD) |
| (16) | a. John shouted the answer to Mary. | (Goal PD) |
| | b. *John shouted Mary the answer. | (비문법적 (illicit) Goal DOD) |
| (17) | a. John made a cake for Mary. | (Ben PD) |
| | b. John made Mary a cake. | (문법적 Goal DOD) |
| (18) | a. John held a bag for Mary. | (Ben PD) |
| | b. *John held Mary a bag. | (비문법적 Ben DOD) |

W-B&S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및 일본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먼저 한국어를 살펴보면 영어와 같이 두 종류의 형식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간접목적어에 ‘-에게 (-eykey)’라는 여격조사가 붙고 직접목적어에 ‘-를/-을 (-lul/-ul)’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는 경우가 하나이고 (19a),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모두에 ‘-을/-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는

경우가 다른 하나이다 (19b).

- (19) a. 철수가 영희에게 공을 주었다. (여격-목적격 구조)
 b. 철수가 영희를 공을 주었다. (목적격-목적격 구조)

일본어는 이중 하나의 구조만이 가능하다.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모두에 ‘-o’ 라는 목적격이 붙는 경우는 비문법적이 되어서 (이중목적격제약 (double-o constraint)) 간접목적어에 여격이 붙고 직접목적어에 목적격이 붙는 여격-목적격 구조만 가능하다.

- (20) a. Hanako-ga Taro-ni hagaki-o oku-ta (여격-목적격 구조)
 H-Nom T-Dat postcard-Acc send-Pst
 b. *Hanako-ga Taro-o hagaki-o oku-ta (목적격-목적격 구조)
 H-Nom T-Dat postcard-Acc send-Pst
 'Hanko sent Taro a postcard'

W-B&S는 이에 대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여격-목적격 구조는 영어의 PD에 상응하고 한국어의 목적격-목적격 구조는 영어의 DOD에 상응한다고 가정하여 한국어는 통사적으로 DOD가 존재하는 반면 일본어는 통사적으로 DOD가 결여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언어가 어떻게 DOD 구조와 PD 구조를 실현시키는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1. 영어, 한국어, 일본어가 DOD와 PD를 실현시키는 방법

언어	DOD	PD
영어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구조	직접목적어-to/for 간접목적어 구조
한국어	목적격-목적격 구조: Acc-Acc 구조	여격-목적격 구조: Dat-Acc 구조
일본어	존재하지 않음	여격-목적격 구조: Dat-Acc 구조

그러나 한국어에서 목적격-목적격 구조가 모든 어휘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Goal DOD의 경우 ‘주다 (give)’, ‘가르치다(teach)’, ‘먹이다 (feed)’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어휘에 목적격-목적격 구조가 불가능하고 Ben DOD의 경우는 수혜동사 형태소 ‘-주-’를 의무적으로 동반해야하는데 여격-목적격 구조와 목적격-목적격 구조 둘 다 가능하다.

- (21) a. 철수가 영희에게/*를 소포를 보냈다. (Goal DOD)
 b. 철수가 영희에게/를 소포를 그려주었다. (Ben DOD)

다음 표에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에 나타나는 Goal DOD와 Ben DOD의 존재 여부가 요약되어 있다.

표2 영어, 한국어, 일본어에 나타나는 Goal DOD 와 Ben DOD

언어	Goal DOD	Ben DOD
영어	√	√
한국어	*	√ ('주-' 형태소를 의무적으로 동반)
일본어	*	*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 20개의 동사가 들어 있는 영어 DOD 구문에 대해 구두로 문법성을 판단하게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Goal DOD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한국어에 DOD가 걸여된 동사이고 Ben DOD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한국어에서 수혜 동사 형태소 ‘주-’를 동반하여 DOD가 가능한 동사들이다.

표3 W-B&S의 실험에 사용된 20개의 동사

문법적 Goal-DOD (e.g. <i>throw someone something</i>)	비문법적 Goal-DOD (e.g. <i>*explain someone something</i>)	문법적 Ben-DOD (e.g. <i>buy someone something</i>)	비문법적 Ben-DOD (e.g. <i>*finish someone something</i>)
1. Throw	1. Say	1. Make	1. Hold
2. Show	2. Whisper	2. Buy	2. Keep
3. Bring	3. Repeat	3. Draw	3. Watch
4. Send	4. Explain	4. Find	4. Fix
5. Hand	5. Shout	5. Get	5. Finish

실험결과 일본 어린이들은 비문법적 Goal DOD와 비문법적 Ben DOD를 대부분 옳게 받아들인 (과다허용: over-acceptance) 반면 한국 어린이들은 비문법적 Ben DOD가 옳지 않다고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했다.

표4 W-B&S 실험결과

구조	한국인 결과	일본인 결과
비문법적 Goal DOD	과다허용	과다허용
비문법적 Ben DOD	옳은 판단	과다허용

FA (완전접근: Full Access)에 따르면 L1에서 발생한 과다허용이 문법적으로 DOD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Goal DOD와 일본어의 Ben DOD에 똑같이 발생하는 것은 L2 문법 발달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한국인이 Ben DOD에 대해서 과다허용하지 않고 비교적 옳은 판단을 내린 것은 한국어에 나타나는 수혜동사 형태소 ‘주-’의 존재로 인해 L2 문법 습득에 방해효과가 생겼고 이것이 발달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과다허용을 방해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한국어의 통사적 특징이 전이 되었다면 DOD를 과다 허용했을 것이다. 한국어의 통사부는 DOD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실험결과는 형태부의 전이를 지지한다. 형태소의 방해효과에 의해 과다허용현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3.2. 통사부 전이

O&Z (2003)은 W-B&S가 사용한 20개의 동사에 대해 한국인 L2 어른들에게 DOD 문법성을 판단하게 한 후 측정한 결과 Ben DOD 보다는 Goal DOD에 더 허용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W-B&S와는 달리 영어의 DOD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조를 여격-목적격 구조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실험을 실시하였다³⁾. 한국어 Goal DOD는 ‘주-’라는 형태소를 필요로

3) 그러나 O&Z (2003, 2005, 2006)와 Oh (2010)에는 한국어의 DOD를 여격-목적격 구조라고 가정했다. 다음과 같은 통사적 측면을 그에 따른 증거로 제시한다. 영어의 DOD에서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비대칭적으로 성분통어 (asymmetrically c-command)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i)). 한국어에서는 비대칭적 성분통어가 목적격-목적격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iii)) 여격-목적격 구조에서 나타난다 ((iv)). 예문 (ii)는 동사 ‘보이-’가 홀로서는 목적격-목적격 구조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iib)는 동사 ‘보이-’에 ‘주-’라는 형태

하지 않기 때문에 ((28)) 영어와 같이 동사 어휘 자체가 DOD 구조를 허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 (28) a. 철이는 영희에게 가방을 가져갔다. (bring)
 b. 철이는 영희에게 가방을 던졌다. (throw)
 c. 철이는 영희에게 가방을 보냈다. (send)

반면 한국어 Ben DOD는 항상 ‘주-’라는 동사를 동반해야하기 때문에 ((29)) 형태소의 존재로 인해 DOD가 허용되는 방식을 택한다. DOD 허용방식에 대한 비교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 (29) a. 철이는 영희에게 케익을 만들어 *(주)었다. (make)
 b. 철이는 영희에게 케익을 사 *(주)었다. (buy)
 c. 철이는 영희에게 케익을 구어 *(주)었다. (bake)
 d. 철이는 영희에게 그림을 그려 *(주)었다. (draw)

표5 영어와 한국어 DOD의 허용방식 비교

언어	Goal DOD	Ben DOD
영어	어휘적 허용	어휘적 허용
한국어	어휘적 허용	형태소 허용

O&Z (2003)의 실험결과는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 L2 학습자 (L2 learner)들은 Goal DOD를 Ben DOD에 비해 쉽게 허용했다. 비문법적인 Ben DOD를 비문법적인 Goal DOD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문법적인 Ben DOD는 문법적인 Goal DOD에 비해 덜 받아들였다. 그것은 한국어의 Ben DOD가 영어와 다른 허용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⁴⁾.

소가 들어가서 목적격-목적격 구조가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iii)에서는 목적격-목적격 구조에 ‘그녀자신’이라는 재귀대명사를 넣어 비대칭적 성분통어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그녀 자신’이 직접목적어 혹은 간접목적어로 나오는 경우 둘다 비문법적이 되었다. (iv)에서는 재귀대명사 ‘그녀자신’을 여격-목적격 구조에 적용해 영어와 같이 비대칭적 성분통어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i) a. I showed John himself.
 b. *I showed himself John.
 c. I showed no one anything.
 d. *I showed anyone nothing.
- (ii) a. *철수가 영희를 그림을 보였다 (목적격-목적격 구조)
 b. 철수가 영희를 그림을 보여주었다.
- (iii) a. ?*철수가 영희를 그녀자신을 보여주었다. (목적격-목적격 구조)
 b. *철수가 그녀자신을 영희를 보여주었다.
- (iv) a. 철수가 영희에게 그녀자신을 보여주었다. (여격-목적격 구조)
 b. *철수가 그녀자신에게 영희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Oh (2009)는 L1 실험을 통해 한국어의 목적격-목적격 구조에 대한 문법성 인식도가 여격-목적격 구조에 대한 인식도보다 유의미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들어 목적격-목적격 구조보다는 여격-목적격 구조가 영어의 DOD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4) O&Z (2003)는 이러한 결과가 형태소 전이를 지지할 수도 있고 Goal DOD의 나타나는 give는 DOD에 나타나는 동사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동사이므로 Goal DOD가 Ben DOD에 비해서 더 높은 빈도수를 보이기 때문이라

표6 O&Z (2003) 실험결과

문법성	Goal DOD	Ben DOD
문법적	비교적 높은 허용도	비교적 낮은 허용도
비문법적	비교적 높은 허용도	비교적 낮은 허용도

O&Z (2005)는 한국인과 일본인 L2 학습자에 대해 같은 실험을 실시한다. W-B&S의 가정과는 달리 일본어에도 한국어와 똑같은 DOD 구조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것은 한국어의 DOD를 여격-목적격 구조로 보기 때문에 일본어에도 같은 여격-목적격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DOD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국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에도 동사 형태소 *ageru*가 붙어서 Ben DOD를 허용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일본어에 *ageru*는 한국어의 ‘주.’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붙어야 Ben DOD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험에 쓰인 동사에는 *ageru*가 없으면 부자연스럽거나 비문법적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와 똑같은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험결과는 다음 표7에 요약된 바와 같이 한국인과 일본인이 똑같이 Goal DOD에 대해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

표7 O&Z (2005) 실험결과

한국인 결과	일본인 결과
문법적 Goal DOD가 문법적 Ben DOD에 비해 허용도가 높다	문법적 Goal DOD가 문법적 Ben DOD에 비해 허용도가 높다
비문법적 Goal DOD 가 비문법적 Ben DOD에 비해 허용도가 높다	비문법적 Goal DOD 가 비문법적 Ben DOD에 비해 허용도가 높다

이 결과에 대해 빈도에 근거한 분석을 내리게 되면 비문법적인 Goal DOD가 비문법적 Ben DOD에 비해 높은 허용도를 보인 것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Goal DOD가 높은 빈도수를 보여 학습이 더 잘 되었다면 비문법적인 Goal DOD를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하여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W-B&S와 같은 형태부 전이를 지지하는 결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Ben DOD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주.’와 일본어의 ‘*ageru*’의 존재가 Ben DOD에 대해 허용도를 낮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Z (2006)는 이를 반박한다. O&Z (2006)는 같은 실험을 한국인과 중국인 어른에게 실시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다. Ben DOD에 형태소를 추가로 사용하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달리 중국어는 Goal DOD에 형태소를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형태소 전이 분석이 옳다면 중국인 L2 학습자들이 Goal DOD보다는 Ben DOD에 더 높은 허용도를 보일 것이라고 O&Z (2006)는 가정했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모두 Goal DOD를 더 쉽게 허용했다. 이는 형태부 전이를 반박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Oh (2010)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DOD 구조 차이에 근거하여 (O&Z (2006)) 통사부가 전이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4. 실험 방법론

지금까지 영어 DOD를 습득 혹은 학습함에 있어 모국어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논의, 즉, 형태부 전이, 어휘부 전이, 통사부 전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인 실험 후 나타

는 빈도에 근거한 (frequency-based) 분석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나는 어휘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흥미있는 대조를 발견하게 된다. Goal DOD중에서 whisper와 explain은 다른 어휘들 보다 높은 허용도를 보이고 있다.

표8 O&Z (2003) 어휘별 결과

비문법적 Goal DOD				비문법적 Ben DOD					
	whis	repeat	expl	shout	hold	keep	watch	fix	finish
%	43.33	16.95	26.22	16.67	10.34	12.28	1.69	1.5	0

현재 O&Z (2003)에서 선택한 어휘는 모두 영어에서는 비문법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문법적이라고 간주하고 W-B&S가 선택한 어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여격-목적격 구문으로 전환해볼 때 whisper와 explain에 해당되는 ‘속삭이다’ ‘설명하다’는 repeat와 shout에 해당하는 ‘반복하다’와 ‘소리치다’에 비해 DOD와 더 어울리는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복하다’는 여격 간접목적어를 취하기가 어색하다. 현재 (30c)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보이는 것은 ‘대답’이라는 서술명사가 여격 간접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이다. ‘소리치다’는 ‘영희에게’라는 간접목적어를 취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명사구를 직접목적어로 취할 수 없어 보인다. ‘-에게 -라고 소리치다’식으로 절을 직접목적어로 취하면 자연스럽지만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30e)의 문장은 어색하게 들린다.

- | | | |
|---------|----------------------|-----------------------------------|
| (30) a. | 철이가 영희에게 대답을 (*말)했다. | (*John said Mary the answer) |
| b. | 철이가 영희에게 비밀을 속삭였다. | (*John whispered Mary the secret) |
| c. | 철이가 영희에게 대답을 반복했다. | (*John repeated Mary the answer) |
| d. | 철이가 영희에게 대답을 설명했다. | (*John explained Mary the answer) |
| e. | ?철이가 영희에게 대답을 소리쳤다. | (*John shouted Mary the answer) |

여기에서 한 가지 연구과제가 생긴다. 영어 DOD와 같이 어휘적 제약을 받는 구조를 습득할 때는 한국어의 어휘적 제약이 전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한국어 DOD가 자연스러운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 DOD를 쉽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Cowan (2008)의 경험적 보고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허용되는 뒤섞기가 전이되어 *He gave the ball her 혹은 *He gave to her the ball과 같이 어순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상위 수준에 있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라 할지라도 ‘보고하다 (report)’와 같이 한국어에서 이중목적어 구문이 허용되는 동사의 경우 영어에서는 PD만을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He reported me the accident와 같이 DOD에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흔히 범한다고 한다.

- (31) 어휘제약 전이 : 어휘제약을 받는 DOD의 경우 모국어의 어휘제약이 전이되는 것이 아닐까?

4.1. 실험 가정

한국인 L2 학습자가 영어 DOD를 학습할 때 한국어가 갖고 있는 어휘적 제약이 전이되는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동사를 기존의 실험과 달리 설정하였다. 한국어에서 여격-목적격 구조가 잘되는 동사군과 그렇지 않는 동사군을 분리하여 영어 DOD 구문을 설정하였다. DOD 문법성에 관련된 한국어와 영어 동사를 비교하면 다음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

- (34) a. 영어와 한국어 DOD에 모두 나올 수 있는 동사

- b. 영어의 DOD에만 나올 수 있고 한국어 DOD에는 나올 수 없는 동사
- c. 한국어의 DOD에만 나올 수 있고 영어 DOD에는 나올 수 없는 동사
- d. 영어와 한국어 DOD에 모두 나올 수 없는 동사

이중 어휘적 제약이 전이되는가를 구별해줄 수 있는 동사군은 b와 c이다. 문법적 DOD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나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비문법적 DOD보다 허용도가 낮게 나타난다면 한국어 여격-목적격 구문의 어휘적 제약이 L2 학습에 전이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4.2. 한국어 동사의 어휘적 제약

영어와 비교했을 때 어휘제약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다. 영어에서는 움직임의 지속성이 있는 동사의 경우 DOD에 쓰이기 어렵다고 앞에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 (35) a. Ann kicked the ball to Beth.
b. Ann kicked Beth the ball.
c. Ann pulled the box to Beth.
d. ??Ann pulled Beth the box.
- (36) a. 철이가 영희에게 공을 찼다/던졌다.
b. 철이가 영희에게 공을 밀었다/당겼다/끌었다.

다음 (37)과 같이 영어의 경우 화행을 나타내는 동사중 절을 목적어로 취할 때는 DOD 구문에 나타날 수 없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39)에서처럼 ‘말하다’나 ‘주장하다’가 절을 목적어로 취할 때 여격-목적격 구조에 나타날 수 있다.

- (37) a. Ann said to Beth that it was raining
b. *Ann said Beth that it was raining.
- (38) a. Ann claimed to Beth that it was raining.
b. *Ann claimed Beth that it was raining.
- (39) a. 철이가 영희에게 비가 온다고 말했다. (say)
b. 철이가 영희에게 비가 온다고 주장했다. (claim; assert)

이외에도 shout에 해당하는 ‘소리치다’는 명사구를 직접목적어로 취할 수는 없지만 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 한국어의 DOD에 나올 수 있다.

- (40) a. 철이가 영희에게 비가 온다고 소리쳤다.
b. ?*철이가 영희에게 그 이야기를 소리쳤다.
c. John shouted to Mary that it was raining.
d. *John shouted Mary that it was raining.

영어에서는 confess가 DOD 구문에 나올 수 없지만 한국어의 상응어 ‘고백하다’는 명사구와 절 모두를 직접목적어로 취하여 DOD 구문에 나올 수 있다.

- (41) a. 철이가 영희에게 그의 죄를 고백했다.
 b. 철이가 영희에게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c. *John confessed Mary his sin.
 d. John confessed *(to) Mary that he was guilty.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에서 같은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직접목적어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DOD의 문법성이 결정된다. 영어의 write에 해당하는 ‘쓰다’의 경우 편지나 이메일을 목적어로 했을 때는 DOD 구문에 나올 수 있지만 소설이나 이야기를 목적어로 했을 때는 DOD에 나올 수 없다⁵⁾. 반면 영어의 write는 목적어를 구별하지 않고 DOD에 나올 수 있다.

- (42) a. 철이가 영희에게 편지를 썼다.
 b. 철이가 영희에게 이메일을 썼다.
 c. ?*철이가 영희에게 이야기를 썼다.
 d. John wrote Mary a letter/an email/a story.

한국어에서는 ‘-로부터 -를 -하다’의 의미로 ‘-에게 -를 -하다’의 형식을 쓰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게서 -를 -하다’라고 표현해야 하지만 보통의 경우 ‘-에게서’에서 ‘-서’를 생략하고 DOD와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 (43) a. 철이는 영희에게(서) 돈을 훔쳤다. (*John stole Mary her money.)
 b. 철이는 영희에게(서) 책을 빌렸다. (*John borrowed Mary her book.)
 c. 철이는 영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John received Mary a letter.)

4.3. 실험방법

위에서 살펴본 특징을 반영하여 실험문장을 각 그룹별로 세 개씩 총 열두 개의 문장을 구성하였다.

- (44) a. He kicked Paul the ball. (한국어 문법적; 영어 문법적)
 b. He taught Bill English. (한국어 문법적; 영어 문법적)
 c. He wrote Beth a letter. (한국어 문법적; 영어 문법적)
- (45) a. He pushed Robert the ball. (한국어 문법적; 영어 비문법적)
 b. He confessed Mary his sin. (한국어 문법적; 영어 비문법적)
 c. He shouted Bob that it was raining. (한국어 문법적; 영어 비문법적)
- (46) a. He wrote Mary the story. (한국어 비문법적; 영어 문법적)

5) ‘철이는 영희에게 이야기를 써주었다.’와 같이 ‘주-’를 더하면 가능해지지만 다른 목적어를 취하는 ‘쓰다’와 달리 Goal DOD에 나올 수 없다.

- b. He asked Jim a question. (한국어 비문법적; 영어 문법적)
- c. He denied Mary the icecream. (한국어 비문법적; 영어 문법적)

- (47) a. He shouted Mary the news. (한국어 비문법적; 영어 비문법적)
- b. He fought Mary the dragon. (한국어 비문법적; 영어 비문법적)
- c. He drank Mary some water. (한국어 비문법적; 영어 비문법적)

여기에 한국어에서 DOD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로부터 -를 -하다’의 의미의 문장을 더하였다. 형식은 DOD이지만 의미로 보았을 때 전혀 DOD가 아닌 문장을 더하여 (45)의 문장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외 16개 문장의 더하여 필러 (filler)로 사용하여 총 69명의 대학생에게 문법성에 대해 1부터 5까지의 숫자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법적 5, 비문법적 1).

- (48) a. John stole Mary her money. (한국어 문법적; 영어 비문법적)
- b. John borrowed Mary her book. (한국어 문법적; 영어 비문법적)
- c. John received Mary a letter. (한국어 문법적; 영어 비문법적)

5. 실험결과 및 해석

문법성 판정 실험에 참여한 학생 69명 중에 19명은 응답을 하지 않은 번호가 있어서 총 50명의 응답만을 실험 결과에 포함시켰다.

- (49) a. He kicked Paul the ball. 1.88
- b. He taught Bill English. 3.02
- c. He wrote Beth a letter. 2.55
- (50) a. He pushed Robert the ball. 1.69
- b. He confessed Mary his sin. 2.33
- c. He shouted Bob that it was raining. 2.38
- (51) a. He wrote Mary the story. 1.74
- b. He asked Jim a question. 4.29
- c. He denied Mary the icecream. 1.79
- (52) a. He shouted Mary the news. 2.36
- b. He fought Mary the dragon. 1.60
- c. He drank Mary some water. 1.40
- (53) a. John stole Mary her money. 1.62
- b. John borrowed Mary her book. 2.43
- c. John received Mary a letter. 1.98

- 전체적으로 DOD 구조에 대한 문법성 판정은 He asked Jim a question의 예문을 빼고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ask somebody a question은 관용적으로 인지되어 있어 filler로 들

어간 일반 타동사구문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filler로 들어간 16개 문장중 15문장은 문법적 문장이었는데 15문장에 대한 문법성 판정 결과 평균 3.88의 점수를 기록했다. Nancy bought a present yesterday에 대해 4.07로 판정하여 He asked Jim a question 보다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push (1.69)나 kick (1.88)처럼 전달의 방법을 나타내는 동사에 대해서는 문법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kick은 한국어나 영어에 공히 DOD를 허용하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1.88의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어에서 비문법적인 push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He wrote Beth a letter (2.55) He wrote Mary the story (1.74)을 비교해보면 같은 write동사에 대해서 문법성 판정이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문법성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 (50)과 (51)을 비교해보면 관용적으로 알고 있는 ask somebody a question의 구문을 제외하고는 한국어에서 문법성을 허용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문법성 판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DOD가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DOD로 나타나지 않는 confess와 shout동사는 비교적 높게 문법성을 판정한 반면 영어에서는 허용되지만 한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write somebody a story구문과 deny somebody something구문에는 문법성을 낮게 판정하였다.
- He shouted Mary the news (2.36)의 문장에 대해 응답자의 반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메리에게 그 소식을 소리쳤다 (소리쳐 알렸다)'로 이해한다면, 한국어에서 DOD가능한 구문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fight (1.60)나 drink (1.40)는 영어 한국어 모두 DOD구문에 나오지 않는 동사이므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borrow (2.43), steal (1.62), receive (1.98) 와 같이 영어와 한국어 모두 DOD에 나오지 않지만 한국어에서 DOD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는 동사의 경우 문법적 허용도가 fight나 drink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Baker CL (1979) Syntactic theory and the projection problem. *Linguistic Inquiry* 10: 533-581.
- Campbell AL and Tomasello M (2001) The acquisition of English dative constructions. *Applied psycholinguistics* 22(2): 253-67.
- Cowan R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berg AE (2002) Surface generalization: An alternative to alternations. *Cognitive Linguistics* 13: 327-56.
- Goldberg AE, Casenhiser DM, and Sethuraman N (2003) A lexically based proposal of argument structure meaning. *Proceedings fo the Annual Chicago Linguistic Society* 39(2): 67-81.
- Green G (1974) *Semantics and syntactic regular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Gropen J, Pinker S, Hollander M, Goldberg R, and Wilson R 1989. The learnability and acquisition of the dative alternation in English. *Language* 65: 203-257.
- Kang SY (2010) The acquisition of English dative constructions by Korean EFL children. *Proceedings of the 16th conference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62-67.
- Krifka M (2003) Semantic and pragmatic conditions for the dative alternation. Paper presented at KASEL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Seoul.

- Montrul S (1997) Transitivity altern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crosslinguistic study of English, Spanish, and Turk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 Montrul S (2000) Transitivity alternation in L2 acquisition: Toward a modular view of transfer.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2: 229-73.
- Oh E (2006)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English double object construction by Korean spea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
- Oh E (2010) Recovery from first-language transfer: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English double objects by Korean speakers. *Second Language Research* 26(3): 407-439.
- Oh E and Zubizarreta ML (2003) Does morphology affect transfer? The acquisition of English double objects by Korean native speakers.
- Oh E and Zubizarreta ML (2005) The asymmetric behavior of goal and benefactive double objects in the English interlanguage of adult L1 Korean and L1 Japanese speakers. In Laurent D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7th Gener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onference (GASLA 2004)*.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193-204.
- Oh E and Zubizarreta ML (2006) Against morphological transfer. In Deen KU, Nomura J, Schulz B, and Schwartz BD (eds) *Proceedings of the Inaugural Conference on Generative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North America*. Honolulu, HI: University of Connecticu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4: 261-72
- Oh E and Zubizarreta ML (2010) A comparison of the English and Korean double object. In Uyechi L and Wee LH (eds) *Reality exploration and discovery: Pattern interaction in language and life*.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185-212.
- Pesetsky D (1995) *Zero syntax: Experiencers and cascades*. Cambridge, MA: MIT Press.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Schwartz BD and Sprouse RA (1994) Word order and nominative case in nominative language acquisition: A longitudinal study of (L1 Turkish) German interlanguage. In Hockstra T and Schwartz BD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Papers in honor of Kenneth Wexler from the 1991 GLOW workshops*. 317-368. Amsterdam: Benjamins.
- Schwartz BD and Sprouse RA (1996) L2 cognitive states and the Full Transfer/Full Access model. *Second language research* 12: 40-72.
- Whong-Barr M and Schwartz BD (2002) Morphological and syntactic transfer in child L2 acquisition of the English dative alterna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579-626.

발표자: 최영주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연락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c.p. 010-8640- 9608, 062-230-6540)

e-mail: ychoi1@chosun.ac.kr